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149 (07671) •전화 : 02-4977-888 •전송 : 02-4970-444 •층 9쪽
•날짜 : 2023년 11월 7일(화) •담당:허유경 공공기관사업국장(010-389-5602) •이메일: kptu2011@gmail.com

“시민과 노동자, 공공교통 안전을 말한다” 공공교통 다크 투어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11월 7일(화) 10시

장소 : 구의역 2층 개찰구 앞

1.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경영합리화’를 내세워 안전인력 2,212명 감축을 밝혔습니다. 공사 전체 정원(1만 6,367명)의 약 13.5%에 달하는 인원을 핵심-비핵심 업무로 분리하고 비핵심 업무를 다시 외주화를 통해 감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2. 이러한 서울시와 공사의 업무 외주화를 통한 안전 인력 감축은 7년 전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를 망각한 ‘위험의 외주화’로의 역행입니다. 그리고 작년 신당역 직원 스토킹 살인사건, 이태원 참사,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 등을 통해 시민과 노동자 안전을 위한 지하철 안전 인력 총원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3.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1/9(목)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파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크투어는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들이 연대하여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안전인력 감축 저지와 공공교통 안전에 대한 직접 목소리를 내고자 기획했습니다. 다크투어를 통해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4. 또한 모두가 안전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공교통을 보장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연대해서 싸워나갈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 2
[붙임 2] 공동주관 발언문 모음	... 3
[붙임 3] 기자회견문	... 7
[붙임 4] 공공교통 다크투어 일정	... 8

[붙임1]

“시민과 노동자, 공공교통 안전을 말한다” 공공교통 다크 투어 기자회견 개요

1. 개요

- (일시) 2023년 11월 7일 (화) 10:00
- (장소) 2호선 구의역 2층 개찰구 앞
- (주관) 시민사회공동행동,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공교통 네트워크,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등
- (내용) ▲다크투어 기획의도 및 의미
 - ▲위험의 외주화 반대 및 안전인력 총원 요구
 - ▲일터 안전 위협, 시민 안전 위협 오세훈 시장 및 서울교통공사 규탄

2. 진행

- 사회 : 서동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시간	순서	발언자	비고
1	3'	취지 발언	- 양한웅 민영화저지 공공성확대 시민사회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2	9'	공동주관 발언	- 김태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윤문상 서울교통공사노조 노동안전국장	
3	3'	일정소개	- 사회자	
4	3'	기자회견문 낭독	-공동주관 발언자	

[붙임2] 공동주관 발언문 모음

■ 김태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태균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매일 안전하게 출근해서 건강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공공운수노조가 하반기 공동파업을 앞두고 지난 여름 언론에 기고했던 서울교통공사 조합원의 기고문 첫 번째 문장입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곳 구의역에서 7년전 홀로 일하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의역 사고 이후 일하다 죽는 비극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모두가 입을 모았지만 죽음의 행렬을 아직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선 매년 24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신당역에서 혼자 일하던 여성 노동자가 끔찍한 폭력에 의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각종 폭력과 위협에 노출된 지하철 노동자들의 현실이 알려지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선 홀로 일하지 않도록 근무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2026년까지 공사 직원 2212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자를 더욱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내몰겠다는 서울시의 의지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구의역 사고 이후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새벽시간 홀로 근무하다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청년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구의역과 너무도 비슷했던 비극적인 소식에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이런 안타까운 죽음은 없어야 한다며 사회 각계각층의 염원이 모여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습니다. 과정이 결코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유가족과 고인의 동료,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싸워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정부는 시계를 거꾸로 돌려 안전하지 못한 공공교통을 만들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김용균 동지 5주기가 다가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김용균 동지의 사고 이전으로 돌리키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아 오늘 다크투어와 공동파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개악을 막아내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입니다.

■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서울교통공사는 2026년까지 정원의 13.5% 수준인 2,211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재정때문이라고 합니다. 작년 서울지하철 승하차 인원은 28억7391만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탑승해 생계를 위해, 친목도모를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하철 운영 방침은 일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비용과 효율성을 내세우며 노동자와 시민 모두를 위협하는 인력 감축을 감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구의역 사고가 왜 발생하게 됐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사고 발생 후 1년 9개월 뒤 하청업체 직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다시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됐습니다. 은성PSD라는 하청업체 소속에서 서울교통공사로 소속이 바뀌었을 뿐인데, 해당 노동자들은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변화는 구체적입니다. 김군의 사고사망 당시 원청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맺었던 계약사항인 고장접수 1시간 이내 현장출동 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 부과 조항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로 개선을 요구하면 잘릴까 싶어 드러내지 못했던 위험들을 드러내고, 더이상 무리해서 열차 운행 중에 스크린도어를 열고 수리업무를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든 것은 바로 하루 대부분이 시간을 보내는, 삶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자신과 동료의 노동이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규직이라고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안전보건의 책임자인 회사가 노동자의 건강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는지, 노동자와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는지, 필요한 재원을 투여하는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구체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인력감축은 이런 개선 방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사는 매년 적자운행을 핑계로 자연퇴사자가 나오는 자리도 채우지 않고, 필요한 현장 인력을 충원할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5월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이후 지하철 심야 연장 운행 합의를 했지만 그때 약속한 승무원 추가 채용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인력감축으로 안전한 지하철은 결코 보장될 수 없습니다. 영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1990년대 들어 효율성 개선을 명분으로 추진한 민영화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철도노동자 수가 반토막이 났고, 사고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1999년에는 열차 충돌로 31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잇따른 사고 원인으로 민간 회사들의 비용 절감이 지목됐습니다. 자동 열차 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신호시설 교체 요구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기준으로 한 지하철 운영이야말로 2016년 구의역 김군의 사고를 재반복하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는 생산성과 효율성이라고 하는 시장화 논리를 앞세우는 오세훈 서울

시장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위계와 폭력을 만들어내는, 존엄과 평등, 안전을 무너뜨리는 체제에 어떻게 함께 대항하며 맞서 싸울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역을 넘어, 우리의 노동과 삶을 위협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인력감축 투쟁에 한노보연을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도 연대하겠습니다.

■ **윤문상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노동안전국장**

정부와 서울시는 노동자와 시민에게 지하철 적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서울지하철은 나쁜 정부 정책에 의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재정 적자를 해소한다는 명목하에 시민에게는 지하철 요금 인상을, 지하철 노동자들에게는 2,200명 안전 인력 감축이라는 말도 안되는 구조조정안을 제시했다. 재정 적자를 유발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발할 예정인 당사자 정부와 서울시는 요금 인상과 안전 인력 감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마법 같은 홍보를 하고 있다. 그 결과 지하철 요금은 인상되었고, 이러한 마법으로 인해 앞으로도 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공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재정 적자는 정부나 서울시가 교통 복지를 이유로 법률 또는 정책에 의해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에게 전가해선 안 되는 비용이다. 적자의 원인은 교통 약자를 위해 1980년도부터 도입된 ‘무임수송비용’과 이후 ‘환승 할인’, ‘정기권 할인’, ‘조조할인’, ‘15분 이내 재승차’, ‘심야연장 운행’, ‘외국인 전용카드’, 그리고 현재 협의중인 ‘기후동행 카드’ 등 서울시 교통복지 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렇듯 적자는 정부나 서울시의 정책으로 인해 당연히 발생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러나 교통 복지정책 자체에 대해 정치인들은 생색을 내거나 자랑만 할뿐 비용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서울시가 관련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지하철 요금은 내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인상될 것이다.

지하철 안전이 구조조정과 연결되면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이 불쾌해진다. 2인 1조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라도 인원 부족으로 인해 작업을 지연시키거나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 사고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승강장 스크린 도어는 지하철에서 자살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여했으나 출입문의 오동작으로 인한 이용 시민의 안전대책과 작업시 노동자의 안전이 열차의 정시운행보다 중요성에서 하위 단계에 있어 스크린 도어가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역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흉기 난동범에 대한 대책 또한 역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일자리 창출사업의 하나인 ‘취약시간

도우미'가 신당역 사건 이후 역순찰 시 2인 1조가 완성되었다고 서울시와 공사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비용의 최소화를 요구하는 정치인들의 나쁜 정책으로 인해 시민과 노동자에게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던 사고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자신의 일터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다가 사망한 구의역 김군, 직장에서 일하다 스톱킹 범죄로 살해당한 신당역 직원, 그 밖에 시민이 사망한 경우는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처참한 여러 사고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이 연결돼 있음을, 인력 구조조정과 위험의 외주화는 결국 노동자와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 때문에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서 “사회적 참사 이후 안전 강화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여 직원과 시민이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 인력충원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금 서울시와 공사는 노·사 합의를 어기고 역대급 인력 감축을 강요하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미 공사의 신규 채용이 중단돼 인력 공백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우리 지하철 노동자들은 우리 자신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공사와 최선을 다해 교섭하는 한편 11월 9일 총파업도 예고하고 있다.

공사와 서울시는 정부 지원을 통해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지하철 요금 인상은 근본적인 재정 적자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진실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인력 구조조정과 위험의 외주화는 사회적으로 나쁜 일자리를 양산할 뿐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행태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서울시와 공사를 상대로 투쟁과 대화를 병행하며 누구나 안전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 지하철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붙임3] 기자회견문

“우리는 안전하고 평등한 공공교통을 원한다”

구의역, 신당역, 이태원, 오송지하차도 등 이름만 들었을 때 끔직한 기억을 떠올리는 참사들이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 모두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교통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였다. 공공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체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반성도 없이 책임을 면하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여줬다.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노동조합에겐 무시와 탄압으로 일관했다. 뿐만 아니라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에겐 마녀사냥식 혐오로 대응했다.

안전할 권리는 이유를 불문한 국민 모두의 기본권이다. 일터와 거리, 노동과 일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막론하고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돼야 할 가치는 없다.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보호하고 평등하게 보장해야 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이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공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윤석열정부는 광범위한 영리화 계획, 공공기관 가짜 혁신방안, 재정 건전성을 빙자한 공공서비스 축소 정책 추진에 따라 정부와 지방공기업의 핵심인 철도 및 도시철도에 대한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에 호응하듯 서울시는 지난달 ‘경영합리화’를 위해 2026년까지 직원 2,212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사고들에서 드러나듯 지금도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공공교통의 안전을 포기하고, 시민과 노동자를 위협으로 내몰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

안전과 담쌓고 거꾸로 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공동행동은 오늘 참사현장을 돌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할 것이다. 또한 시민안전을 해치는 인력 감축을 중단하고, 평등하고 안전한 공공교통을 보장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며 함께 싸워갈 것이다.

2023년 11월 7일
공공교통 다크투어 참가자 일동

[붙임 4] 공공교통 다크투어 일정

1. 공공교통 다크투어 세부일정

1) 구의역 다크투어

- 일시 및 장소 : 11/7(화) 10시 30분, 구의역
- 진행 : 서동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소요시간	내용	도슨트 및 당사자 발언
15'	구의역 9-4 승강장 묵념 및 헌화 (*기자회견 후 9-4승강장으로 이동)	서동훈 공공운수노조 노인실장
10'	김군 사고 교훈 : 위험의 외주화 반대 및 2인1조 근무 법제화 (*헌화후 대합실 이동)	오선근 공공교통네트워크집행위원장 (생명안전시민넷 운영위원)
5'	청년 노동권 : 오늘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이야기	정성용 물류센터지부 쿠팡지회 지회장

2) 신당역 다크투어

- 일시 및 장소 : 12시, 신당역 10번 출구, 광희초등학교 앞 인도
- *진행 : 허유경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

소요시간	내용	도슨트 및 당사자 발언
10'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과제와 지하철 역직원 안전	권오훈 공공운수노조 인권국장 (서울교통공사 역직원)
5'	젠더폭력과 지하철 이용자 안전	이수정 서울여성희 서대페연 활동가
5'	출구 옆 헌화	*전체 이동

3)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다크투어

- 일시 및 장소 : 14시 30분, 이태원역 1번 출구 옆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 진행 : 한대식 공공운수노조 연대사업실장

소요시간	내용	도슨트 및 당사자 발언
10'	사회적 참사와 시민안전	자캐오 대한성공회 신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장)
5'	유가족 발언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유가족
5'	추모글 남기기 및 헌화	한대식 공공운수노조 연사실장

4) 신길역 다크투어

- 일시 및 장소 : 16시, 신길역 3번 출구
- 진행 : 허유경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

소요시간	내용	도슨트 및 당사자 발언
10'	휠체어 리프트 사망 장애인 추모동판 방문	허유경 공공기관사업국장
10'	지하철 리프트 추락 사고 : 저항과 투쟁으로 만들어진 스크린도어, 경사형 엘리베이터	권오훈 공공운수노조 인권국장 (서울교통공사 역직원)
5'	누구나 평등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	추경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